

# 코로나로 배달 급증... 오토바이 사고 제일 많은 곳은?

광주·전남 9곳 최근 3년간 146건 발생...대책 마련 시급

광주 동구 지산 사거리·서구 운천저수지 부근 등 7곳

주말·오후 6~10시 집중...사망사고 전년비 9배 증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외출 자제에 따른 음식 배달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지역 오토바이 사고 다발지는 어디? = 10일 도로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SS)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최근 3년간(2017~2019년) 오토바이 사고 다발지는 총 9곳(광주 7곳·전남 2곳)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다발지는 반경 100m 이내 1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광주의 7곳은 광주시 동구 지산 사거리 부근(16건, 부상 21명), 서구 운천저수지 부근(22건, 사망 1·부상 27), 북구 용봉동 롯데하이마트 부근(17건, 부상 15), 북구 북구청 앞 오거리(15건, 사망 1·부상 20), 광산구 신창우체국 사거리(15건, 부상 18), 광산구 신가중학교 사거리(15건, 부상 19) 등이다.

광주 7곳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는 총 115건으로 최근 3년간 광주시 전체에서 발생한 1197건의 이륜차 사고의 10%에

## ■ 광주·전남 2017~2019년 이륜차사고 다발지역

시도	장소 설명	사고	사망	중상	경상	부상
◆ 광주						
동구	지산동(지산사거리 부근)	16	0	5	14	2
서구	쌍촌동(상무지구입 부근)	22	1	6	19	2
북구	용봉동(설죽로234 부근)	17	0	4	21	0
	용봉동(설죽로208 부근)	15	1	0	19	1
광산구	신창동(신창로61 부근)	15	0	4	13	1
	신창동(신창로35번길3 부근)	15	0	4	11	1
◆ 전남						
목포시	상동(무영생뱀 부근)	16	0	4	17	0
	상동(백년로비파로 부근)	15	0	4	15	0

달하는 수치이다.

전남의 2곳은 목포이다. 목포시 상동 무영생뱀 부근(16건, 부상 21), 목포시 상동 백년로비파로 부근(15건, 부상 38)

등이다.

◇늘어나는 사망 사고=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7월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총 309건으

로 9명이 숨지고 4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2018년 총 236건(사망5·부상318), 2019년 총 301건(사망1·부상 442)이다.

전남도 같은 기간 올해 총 440건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569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8년과 지난해 같은 기간 390건(사망22·부상474), 438건(사망22·부상533)에 비해 증가세이다. 다행히 전남에서는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 발생과 부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오토바이사고로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9배나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지난달 28일 새벽 5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26)씨가 좌회전하려다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쳐 현

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사고 집중 시간대는? = 오토바이 사고는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오토바이 사고는 요일별로는 금·토요일에 각각 15.6%로 가장 많이 집중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밤 10시에 사고가 집중돼 저녁식사 및 야식 배달이 많은 시간대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민경진 센터장은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관련 이륜차 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면서 "이륜차 탑승자는 사고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광주시의회 조례 제정

최근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등으로 학교의 화장실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 시설 개선과 위생적 관리, 불법 촬영기기 점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더불어민주당·서구 1)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소독, 편의용품(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물비누, 온수기, 비데 등) 비치, 그림이나 사진, 화분 등 설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



영업 재개 전 PC방 소독 한창  
광주지역 PC방이 영업을 재개하는 10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PC방에서 일곡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생활방역단원들이 시설을 방역·소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동강대 비대면 수업 연장

동강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수업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동강대는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당초 12일까지 예정된 비대면 수업을 일주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동강대는 재택수업이 2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학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학교 및 학과 홈페이지에 비대면 수업 일정을 재공지하고 문자메시지와 유선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동강대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비대면 수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원격수업 질 관리 등 비대면 강의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 “제발,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해 주세요”

### 광주시 북구 호소문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북구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코로나19 관련 구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교회, 전통시장, 체

육동호회 등을 통해 1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북구는 19개 대응반 729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해 현재까지 3만 1031명을 진단검사 했고, 651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대목을 앞두고 광주를 대표하는 말바우시장 내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감염원 차단에 매진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광주시에서도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했고, 북구

에 의료인력과 방역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절저한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민생 경제 활성화에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보조를 맞춰 구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고 희망을 주는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개인 방역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고, 3단계 준하는 집합금지제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남구 '복지 7979센터' 매니페스토 최우수

광주 남구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선 7기 김병내 구청장 공약으로 추진한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사업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선정한 올해 최우수 정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202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경진대회 최종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132개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72개 사업에 대한 부문별 평가 이뤄졌다.

남구는 이번 초고령화 대응 부문에서 전화 한동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사업을 제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 후 독거노인의 증가 등 사회적 배려와 관심, 도움이 필요한 아들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7979 콜센터를 비롯해 7979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통합 복지 플랫폼을 선보인 점이 최우수 수상의 배경이 됐다.

김병내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이웃이 없게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광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대, 문화자원 개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

전남대학교가 지역 문화자원을 개발할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에 나선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은 지역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와 문화상품을 개발할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시 북구 중흥2동과 신안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소셜 비즈니스 기획', '지역 고유자원 발굴',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사업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은 오는 14일까

지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창의력 있는 지역 청년문화기획자들을 모집해 오는 12월 2일까지 '로컬스팟, 커뮤니티, 문화브랜드, 문화콘텐츠 상품(굿즈), 여행기획' 등 5개 부문에 걸쳐 전문가 교육과 멘토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크리에이터들을 선발해 현장정보 공유와 아이디어 제안 등 로컬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 교수는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협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창출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지역 고유의 문화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힐링여행 1번지  
무안으로 떠나는 여행

www.mu-an.go.kr

무안군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1(무안항토갯벌랜드)

무안회산백련지  
무안군 일로읍 봉용리 150번지(무안회산백련지)